

마음을 나누는 편지쓰기 봉사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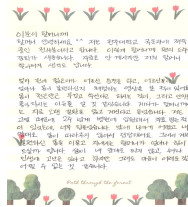
1. 봉사활동 개요

가. 봉사활동 소개

: 편지를 통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소외 아동에게 일상을 나누고 삶에 희망을 주는 활동

나. 봉사활동 인정 시간

- 편지 1개 2시간, **최대 2시간 인정**
- **필수 사항: 나눔 키트 1개 혹은, 캔들 1개 이상과 함께 제출(결과물과 편지를 함께 전달)**
- 편지와 키트를 포장하여 대상에게 전달 예정



다. 손 편지 작성 기준

- 편지지 종류: 무관(단, 무지 용지에 작성 지양)
- 글씨 크기: 대상이 어르신일 경우 15pt
- 분량: 1,000자 이상
- **유의점**
 - 편지 대상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여 공감적으로 글쓰기
 -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글쓰기

라. 봉사활동자 모집(선착순 100명)

- 일정: **9. 13.(월) 12시 10분부터 접수**
- 접수 방법: **다음 링크 접속 후 작성 및 제출** → <http://naver.me/GaM5PsII>
- 접수 시 희망 대상 선택 (어르신/아동)
 - ※ **희망 대상을 고려하여 매칭하나, 특정 대상 수요가 부족할 경우 선착순에 따라 임의로 배정될 수 있음**
- 선발 학생에게 개별 문자 통보

마. 봉사활동 진행 순서: 선착순 선발 → 선발 학생과 편지 대상을(어르신 또는 아동) 센터에서 매칭 → 학생에게 편지 대상 기본 정보 알림(9월 중) → **대상 기본 정보(이름, 나이, 성별 등)를 고려하여 손 편지 작성 및 키트/캔들 제**

작 → 센터에 방문하여 포장 및 제출

바. 결과물/결과 보고서 제출: 12. 10.(금) 12:00까지

1) 결과 보고서(inSTAR) 작성: 편지와 키트/캔들을 모아 찍은 사진 1장(형식은 JPG 필수)

2) 결과물 제출: 사회봉사센터로 제출

※ 사회봉사센터 위치: 스타센터 컴퓨터센터 입구로 입장 시 보이는 계단 옆 사무실 (239호), 진로취업지원실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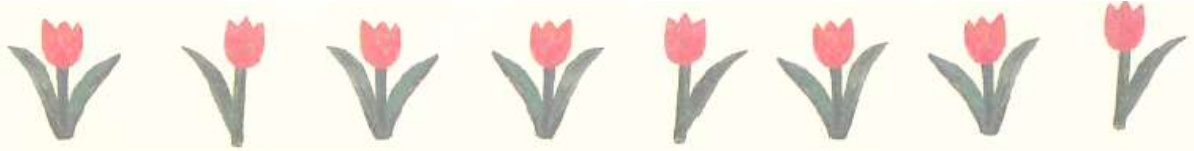
※ 센터에 준비된 제출 확인 용지에 이름/분반/학번 기재

※ 준비한 편지와 키트/캔들을 센터에 구비된 상자에 직접 포장하여 제출

2. 참고 영상 및 손 편지 예시

가. 어르신들의 입장을 이해해보기 위해 시청하면 좋을 영상

 [노인보건] 노인들의 노화현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www.youtube.com	 [감동영상] "내가 팔순 노인이 된다면?" 노인의 마음/부산시 세... www.youtube.com
https://www.youtube.com/watch?v=PEqR64KQGus	https://www.youtube.com/watch?v=c9ejd6aClPE
 병원에서의 일상들~ ㅎㅎ 간지할머니는 정말 빠르게!! 회... www.youtube.com	 [강계열 할머니를 만나다] '님아 그 강을..' 후 5년만의 근황.. 94... www.youtube.com
https://www.youtube.com/watch?v=_sa5JHbqZaw&list=PLrCZg2F3BYjacHKgOyEOpFyUNowchwlNk&index=6	https://www.youtube.com/watch?v=f2meOfQck08
 [세대의 참견①] "나 땀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 달달했... www.youtube.com	 [세대의 참견④] 내가 내일 노인이 된다면 www.youtube.com
https://www.youtube.com/watch?v=TGmfiJGtNAs	https://www.youtube.com/watch?v=Xk5t6k6w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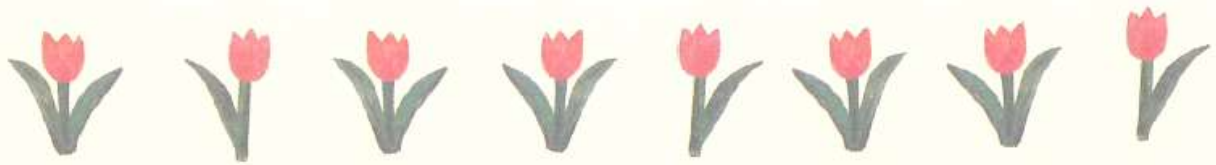


이분이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 저는 전주대학교 국문과에 재학 중인 전사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머니께 편지 드려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납니다.

얼마 전에 젊은이가 어르신 분장을 하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몸이 불편하신지 체험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쑤신다고 하시는 것이, 그리고 안마를 좋아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께서는 지금 오랜 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열 때문에 2주 넘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기 어렵고 내 맘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계속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지내시는 할머니가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합니다. 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누구나 인생에 고난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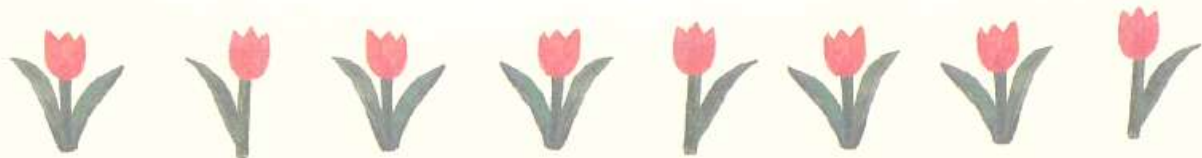




할머니 그래도 아프신 몸이 어찌면 칠십 평생을 묵묵히 열심히 살아오신 훈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22년 밖에 살지 않아서 할머니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지만, 나름 어려운 일들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1년 간 두통에 시달려서 한의원을 다니다도 했고, 친한 친구가 배신해서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 끝나고 갈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말 사회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손님들이 엉뚱하게 요구하고 화내시는데 용돈 벌기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 정말 산전수전 겪으셨겠지요? 그러니 몸이 편찮아지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신 훈적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내신 것 대단하세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삶을 살아 내어 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할머니나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6.25 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를 정돈하고, 70년대 80년대를 성실히 살아 내어주셔서 지금 제가 발전 되고 안정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함이 참 고마운 계절입니다. 선선한 바람 속에서 자연을 느끼시며 좀 더 건강해지 시기를 제가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으시라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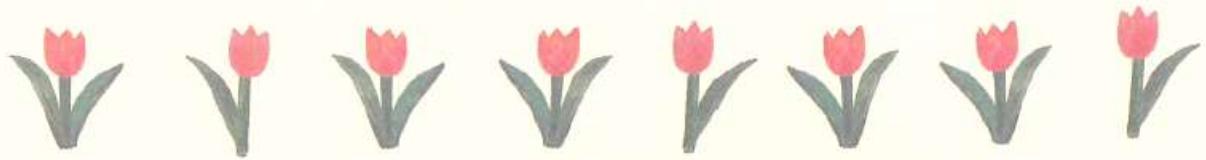
<제목: 감터져요>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딸기도 아닌 '감'이 살았어요. 감은 감안에 워낙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보는 사람마다 감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화병이 나 뺨 터져 병원에 실려갔지요.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걱정하며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 이렇게 부탁 하는 거예요.

Path through the forest





"한번만 더 '감자' 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 환자는 터져 죽습니다. 알겠지요?"

친구들은 감자란 말은 만 하겠다고 다짐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자는 것도 같고, 자는 적 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한 친구가 물었어요.

"감, ~ 자 ~ ?" (호호호...)

이름처럼 마음도 얼굴도 이쁘실 이분이 할머니!
안녕히 잘 지내세요!

- 전사봉 올림 -

